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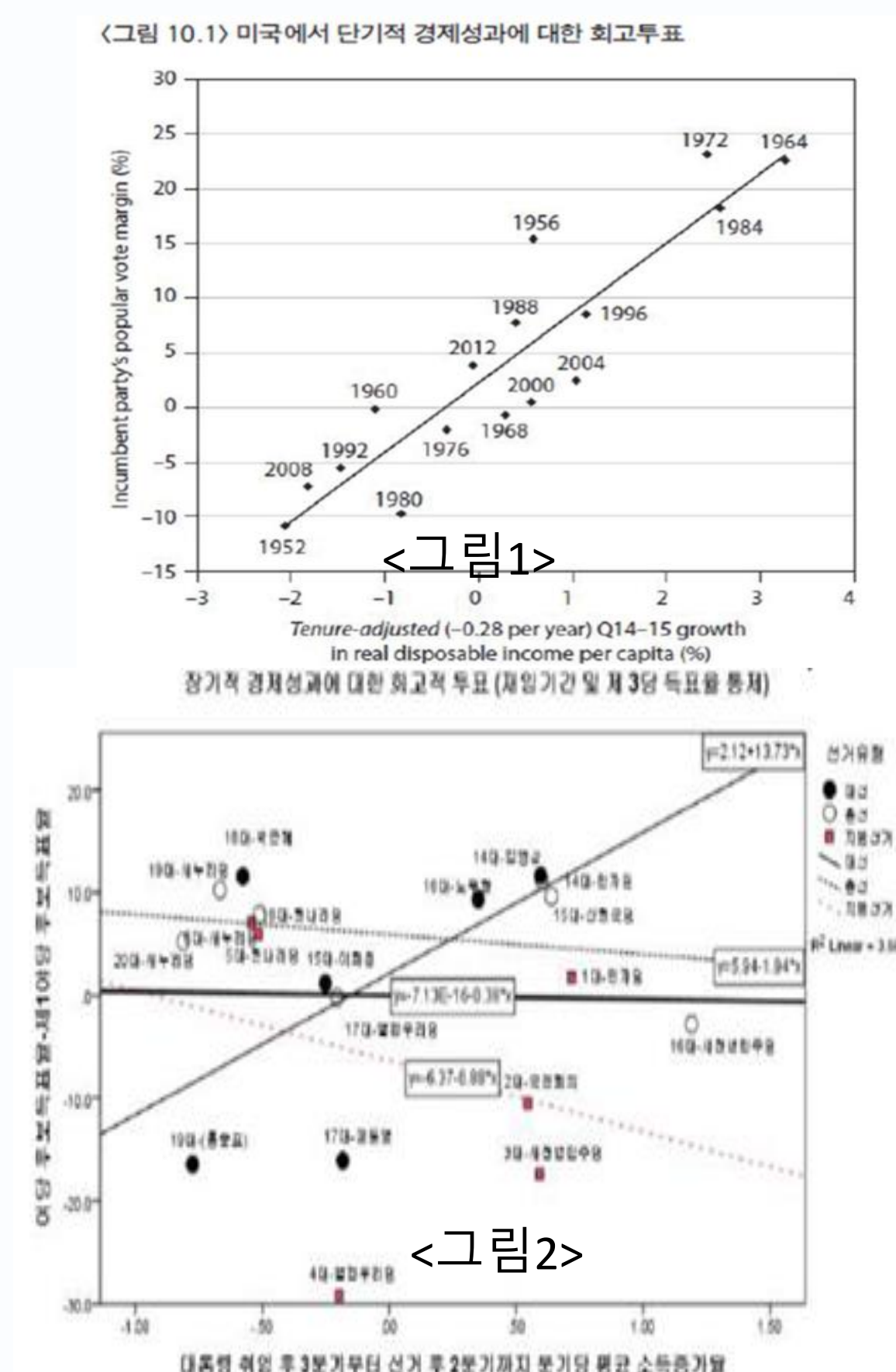
아시아 민주국가에서 회고적 경제투표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여론과 선거경쟁」과 「역사학입문」 강의페어링

심리학과, 김은서, 201921763, 이진희 교수님 지도

목적

- <그림1>의 미국과 같은 사례처럼 객관적 경제 지표와 후보자 득표율 간에 유의미한 상관
 - 그러나 <그림2>처럼 한국에서는 경제와 선거 결과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음.
- 이는 아시아의 또다른 완전민주국가인 일본, 대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세 국가 모두 회고적 경제투표가 아닌 전망적 경제투표를 함.
- 한국에서 회고적 경제투표를 가장 방해하는 요인은 안보이슈, 정당 이미지.
 - 이 두가지 요인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아시아 국가에서 회고적 투표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동양문화권, 집단주의 등의 이분법적인 설명으로 해내려는 기존의 이론에서 탈피하여, 그것이 아닌 다른 사회 문화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고자함.



회고적 경제투표의 중요성

- 투표는 정권의 심판과 보상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
- 그 중에서도 경제는 시민들도 쉽게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평가가 쉬운 투표기제.
- 전망적 투표는 후보자의 능력이나 공약 등 유인 가치에 의한 선거결정이라는 점에서 필수적. 그러나 지난 정권의 책임 소재 역시 중요.
- 두 투표기제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

대만과의 비교

1. 안보이슈

한국과 대만의 경우 세계 몇 안되는 분단국가로 북한, 중국이라는 중요한 안보 이슈존재. 그러나 두 국가가 보이는 세대 간의 투표 양상은 다름.

한국에서는 기성세대일 수록 대북 이슈, 국가경제 전망적 투표를, 청년 세대일수록 소득 분배, 개인 가계사정에 따라 투표.

- 한국 전쟁이라는 경제문제보다 부각되는 강력한 안보문제를 경험한 기성세대. 때문에 회고적 경제투표 미작동.
- 안보에 대한 두려움은 미래지향적 투표를 자극할 것이고 그 결과 전망적 경제투표 발생.

실제로 안보위협을 체감하지 못한 청년 세대의 경우 일반적인 선진 국가의 국민들처럼 회고적 경제평가로 투표.

그러나 대만에서는 세대간 차이 없이 두 세대 모두 국가 경제 전망적 투표 청년세대 역시도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2008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으로 선출된 민주당후보가 경제 약화라는 결과 속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과 8년 만에 정권을 잡게 됐을 때 가장 부각된 이슈가 홍콩 사태, 주 지지층은 청년세대.

2. 정당 이미지

한국과 대만 모두 분단 국가 외에도 독재 정권, 급격한 경제 성장 등의 공통점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경제 발전 시기가 독재 정권 시절이었다는 점.

>>> 각각 보수당, 국민당이 경제적으로 유능하다는 이미지.

실제로 한국에서는 보수당 집권 정부의 경제실패를 집권당에게 묻지 않고 야당에게 돌리는 야당 심판론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

이는 그만큼 보수당에게 갖고 있는 경제적 유능성 프레임이 강하다는 것과 더불어 시민들이 정당 이미지로 회고적 경제심판을 방해받는 것을 알 수 있음.

대만에서도 국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이유로 꼽히는 “부자 되세요” 슬로건은 얼마나 대만 국민들이 국민당에 얼마나 높은 경제적 유능성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줌.

일본과의 비교

1. 안보이슈

일본의 경우 투표율이 낮고 사실상 일당집권 체제로 한국, 대만과 달리 경제상황과 득표율, 혹은 정권교체의 상관으로 경제투표를 분석할 수 없었음.

다만 회고적투표가 일어나지 않고 전망적 투표가 일어난다는 것을 개별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음

- 일본의 90년 ~22년 경제성장률 평균 0이지만 정권교체X >>> 회고적 경제투표 X.
- 일본의 성장 외치는 아베노믹스에 일본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 >>> 전망적 경제투표 O

일본은 세계 유일한 원자 폭탄 피격 국가로 원자 폭탄에 대한 강한 국가적 트라우마, 거기에 더해 일제강점기 역사를 고려하면 일본이 북한에 갖는 강한 위협감을 이해 가능.

다만 한국에선 세대에 걸쳐 약화되는 모습이 일본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안전불감증도 있겠지만 일본 자민당의 전략으로도 보여짐.

아베의 주요 공약중의 하나는 재무장. 자민당의 이런 안보이슈 부각은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로 인한 불안감을 안보로 인한 불안감이라고 착각 하도록 만들었고 경제보다 안보 문제가 투표결정에서 우선시 된 것으로 보임.

2. 정당 이미지

유일하게 자민당이 아닌 야당이 정권을 잡은 95년도와 2011년도 각각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그때 야당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 낮은 유능성 이미지 형성

이러한 이미지가 회고적 경제투표를 방해하여 자민당 장기집권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임.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에서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 일본, 대만이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회고적 경제투표가 미흡한 이유를 단순한 동서양의 차이가 아닌 다른 요소들로 설명해보려했고 세 국가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발견함.

세 국가 모두 북한 혹은 중국이라는 강한 안보위협이 대상이 존재했으며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 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특정 정당 집권 당시의 역사적 사건에 의해 특정 당에 갖는 강한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이는 투표 결정이 회고적인 경제평가에 기반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미지에 기반해 전망적으로 투표하도록 만들었음을 확인.

본 연구는 아시아 민주국가 3국에서의 투표 경향성을 단순한 동양 문화권이라는 이분법적 설명 외의 새로운 설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